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이중매개효과*

최혜선¹⁾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1차년도와 14차년도 자료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67명(남학생 600명, 여학생 567)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기 동안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청소년기 개인의 태도나 가치형성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사이버폭력 감수성, 권위있는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공감

I. 서론

최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동과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중심의 인프라가 정보제공, 오락,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일상의 전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사이버는 아동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성정혜, 2023). 그러나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하여 온라인에서의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 본 논문은 2023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1) 원광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과 조교수, 아동청소년연구센터 소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행해지는 괴롭힘을 의미한다(Hinduja & Patchin, 2008). 사이버폭력과 유사하게 사이버비행은 사이버 공간에서 법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범죄로 정의된다(Parker, 2000). 사이버폭력은 익명성, 비대면성, 직접적인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의 특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무분별하게 나타날 수 있다(Hinduja & Patchin, 2008; Wade & Beran, 2011). 나아가 현실 공간보다 폭력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9,218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의 사이버폭력은 가해와 피해, 가·피해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더 높았다.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는 '보복'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도 13.3%에서 17.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하며, 사이버폭력 예방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윤리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인 인식이 92.5%로 전년 대비 상승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이 가장 높았는데, 반항적인 심리나 정서, 불안정한 행동 경향을 보이는 이 시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개인과 주변 환경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성정혜, 2023; 이정기·우형진, 2010; Linares, Aranda, García-Domingo et al., 2021)은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낮을수록 폭력과 같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으며 사이버폭력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타인이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개인의 행동을 선택하는 사회적·정의적 개념으로 생각이나 감정, 마음가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백선희, 2020).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어느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기본이 되므로 개인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제행동이론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적응을 해석하는 데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

다. 문제행동이론에서는 개인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관련 변수들이 여러 유형의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높이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O'Connor, Dolphin, Fitzgerald et al., 2016; Roter, 1982). 이 개념을 토대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문제행동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선미정·전종설, 2021). 먼저,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를 꼽을 수 있다. 부모와 상호작용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 주요한 요인이다(Bronfenbrenner, 1979). 부모의 양육행동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녀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Berk, 2013). Baumrind(1971)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과 통제 of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애정과 통제 of 두 차원이 모두 높은 경우를 권위있는(authoritative) 양육이라고 하였으며,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자녀발달에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다(Lu & Chang, 2013). 이러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애정을 주며 민주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 논리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양육행동으로 아동의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umrind, 1971; Robinson, Mandlco, Olsen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개념의 양육행동으로 권위있는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며, 부모의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보다는 주로 사이버폭력이나 비행 경험 간의 관계(성동규·김도희·이윤석 외, 2006; 조강원·임영식, 2020)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노경훈·한대동, 2017; 문희·강희순, 2018)를 살펴본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폭력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부모의 비일관적인 부정적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는 사이버폭력의 피해나 가해 경험을 증가시키며(성동규·김도희·이윤석 외, 2006; 신나민·안화실, 2013; 조강원·임영식, 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훈·한대동, 2017; 문희·강희순, 2018). 이처럼 그동안은 사이버폭력 경험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왔으나, 사이버 공간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인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정과 합리적 유도, 민주적인 관계, 편안함 등의 긍정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권위있는 양육행동을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일관적인 경향이 강하며 청소년기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큰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사이버폭력에 대해 가지는 인

식이나 태도인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개인의 태도나 가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개인 외적인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 내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은 부모의 양육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받으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가치형성과 태도,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이나 발달에 긍정적인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선행연구들(구본희, 2006; 이정연·최영선, 2002)은 아동의 자아특성이 사이버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왔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사이버 일탈과 직결되는 경향이 낮고 사이버 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란희·유형근·남순임, 2015; 이정연·최영선, 2002). 자신이 가치있고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은 자신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어 사이버 윤리의식이 높아 사이버비행 감수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민미희, 2020; 선미정·전종설, 2021; Kamkar, Doyle, & Markiewicz, 2012). 가정에서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수용적이면서 동시에 적절한 통제를 하면, 아동은 자기 가치에 대해서 안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애정을 가지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지닌다. 따라서 애정과 함께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이 높아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팬데믹 이후 대면접촉 감소와 소통의 부재로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행동이다(Fernandez & Zahavi, 2020; Robinson & Rogers, 2015).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홍예영·김유숙, 2015). 이러한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고(남궁기순·김기선·이재영 외, 2019),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낮추게 한다(안지영·김지신, 2014). 반면, 공감능력이 낮으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느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최나래, 2014). 공감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공감능력은 바람직한

학교폭력 태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강소라·조해련·김신정, 2020; 김정옥·김원일, 2019). 특히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방관적 태도 모두 낮아 공감 능력이 발달한 아동은 타인을 돕고 정의로운 행동을 하며 폭력 피해자의 어려움을 보고 단순히 지나치지 않는 등 올바른 폭력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강소라·조해련·김신정, 2020; Spinrad & G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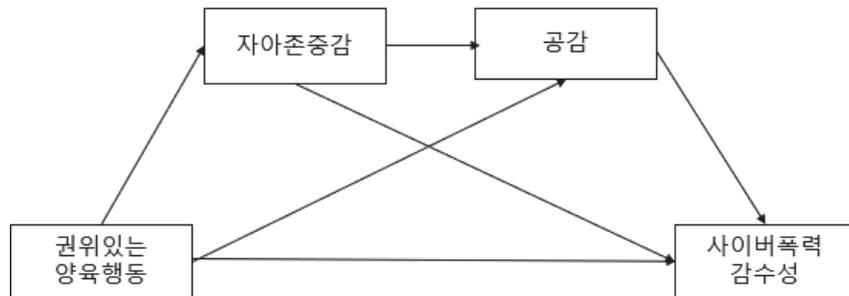
공감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국내 선행연구(조민규·홍승희·김춘경, 2024)에서 공감의 어떠한 측면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있는지 검증한 결과 공감의 하위요인 모두 사이버폭력 감수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공감, 행동이나 의사소통적인 외적인 표현인 표현적 공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Robinson & Rogers, 2015; Vreeke & Van der Mark, 2003), 하위요인 모두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연구에서도 공감능력 수준에 따라 사이버 비행 인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공감 고수준 집단이 사이버 비행 인식 수준이 가장 높고 공감 저수준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안은민·허무녕, 2024). 또한, 공감능력이 높으면 폭력허용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안지영·김지신, 2014),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을 길러주면 타인이 느끼게 될 고통을 알게 되고 타인을 괴롭히는 언어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된 아동은 생각이나 판단,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손상될 위험이 높으며, 전두엽 손상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chmann, Sindermann, Sariyska, et al., 2018).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아동들의 공감능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감능력은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의 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Mussen & Eisenberg, 2001), 특히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은 자녀의 이타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Grath, Zook, & Weber-Roehl, 2003). 부모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강정희·이은희, 2009; 정화니·조옥귀, 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안은민·허무녕, 2024) 결과,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과 공감수준이 중간인 집단이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감능력을 향상시켜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높이는 경로를 가정해 보고자 한다.

앞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 개인의 내적인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공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연구들(김주찬, 2012; 안은민·허무녕, 2024; 이상미, 2024; 이정아·이윤정, 2016)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형성하면 자신의 감정과 인식을 원활히 조절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으며 타자지향성과도 관련이 있어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공감능력은 아동기의 자아중심적 특성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배은경, 2011). 즉,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며,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며 타인과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에,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 각각의 매개적인 역할과 함께 자아존중감이 공감으로 이어지는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경로를 밝힘으로써 스마트폰 사용과 인터넷 활용이 높은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바람직한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아동기일 때 경험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지니게 되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더불어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매개로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한국아동패널(PSKC)의 11차년도(2018)와 14차년도(2021) 자료를 활용하였다. 11차년도 자료에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14차년도 자료에서 아동의 공감과 사이버폭력 감수성 변인을 선택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11차년도와 14차년도의 연구변인에 모두 응답한 1,167가구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 600명(51.4%), 여아 567명(48.6%)이다. 11차년도 기준 아동의 연령은 10.3세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1세이다. 어머니의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5년제 포함) 38.6%(451명), 2~3년제 대학 졸업 28.5%(333명), 고등학교 졸업 25.5%(298명), 대학원 졸업 6.4%(75명), 중학교 졸업 이하 0.8%(10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사이버폭력 감수성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에서 실시한 정보문화실태조사 중 인터넷 윤리의식에 관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사용한 척도이다. 모바일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때 역기능 현상들에 대하여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총 6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집단 따돌림에 가담하기” 등이 있다.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문제된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이버폭력 감수성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7이다.

나. 권위있는 양육행동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Robinson, Mandleco, Olsen et al.(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번역하여 수정한 척도 중, 권위있는 양육행동 척도를 활용하였다.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애정/관여(11문항), 이성/유도 7문항, 민주적 관계(5문항), 친절/편안함(4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이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 애정/관여는 “아이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성/유도는 “아이에게 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민주적 관계는 “가족규칙을 정할 때 아이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친절/편안함은 “아이를 편안하게 대해준다” 등이다. 부모가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있게 민주적으로 양육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권위있는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애정/관여 .85, 이성/유도 .66, 민주적 관계 .67, 친절/편안 .70, 전체 .91이다.

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MCS(Millennium Cohort Study)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문항을 아동 대상 조사에 적합하도록 10문항으로 축소하여 조사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사용한 척도이다. 총 5문항이며, 문항의 예로는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등이다. 아동이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83이다.

라. 공감

아동의 공감은 홍예영과 김유숙(2015)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청소년 공감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팀이 사용한 척도이다. 표현적 공감(7문항), 인지적 공감(4문항), 정서적

공감(4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문항이다.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로 표현적 공감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간다”, 인지적 공감은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은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등이다. 아동이 응답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표현적 공감 .91, 인지적 공감 .58, 정서적 공감 .83, 전체 .90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한 자료는 SPSS 27.0과 PROCESS macro version 4.2 (Hayes, 20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연구변인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Cronbach’ α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version 4.2(Hayes, 2022)의 이중매개모형 6번 모델을 사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00개의 표본을 95% 신뢰구간 내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는 $-.23 \sim -2.38$, 첨도는 $.01 \sim 4.69$ 로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3미만, 10미만이어야 변인의 분포가 정상성을 보인다는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다음으로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r = .09, p < .01$), 부모가 권위있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높았다.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사이버폭력 감수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r = .06, p < .05$)과 공감($r = .20, p < .001$) 모두 사이버폭력 감수성과 각각 유

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높았다.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r = .13, p < .001$)과 공감($r = .08, p < .01$) 각각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가 권위있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높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r = .16, p < .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았다.

〈표 1〉 권위있는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공감,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상관관계
($N = 1,167$)

	1	2	3	4
1. 권위있는 양육행동	-			
2. 자아존중감	.13***	-		
3. 공감	.08**	.16***	-	
4. 사이버폭력 감수성	.09**	.06*	.20***	-
<i>M</i>	4.04	3.49	4.15	4.40
<i>SD</i>	0.46	0.46	0.72	1.03
왜도	-.23	-1.32	-.52	-2.38
첨도	.01	2.57	1.38	4.69

* $p < .01$. ** $p < .01$. *** $p < .001$.

2.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 = .20, p < .01$). 즉, 부모가 권위있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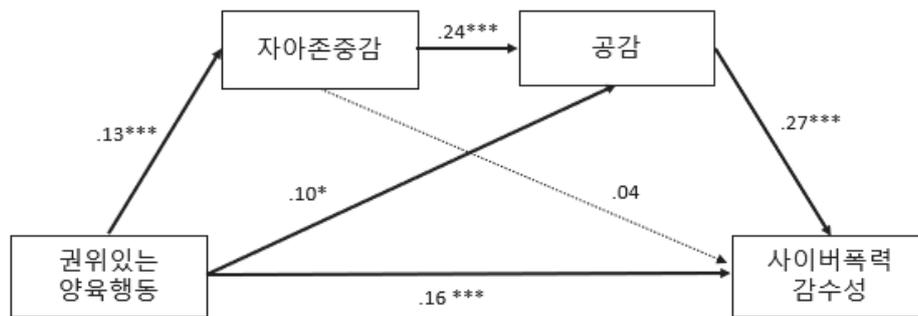
다음으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아존중감($B = .13, p < .001$) 및 공감($B = .10, p < .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B = .04, n.s.$)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공감($B = .27, p$

< .001)은 사이버폭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가 권위있게 양육할수록 아동의 공감능력이 높아졌으며, 이는 높은 사이버폭력 감수성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공감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B = .24, p < .001$) 부모가 권위있게 양육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졌고, 이는 높은 공감능력으로 이어져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효과 ($N = 1,167$)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p	LLCI	ULCI
자아존중감	권위있는 양육행동	.13	.03	4.45	.00	.07	.19
	$F=19.77^{***}, R^2=.02$						
공감	권위있는 양육행동	.10	.05	2.20	< .05	.01	.19
	자아존중감	.24	.05	5.37	.00	.15	.33
	$F=18.66^{***}, R^2=.03$						
사이버폭력 감수성	권위있는 양육행동	.16	.07	7.19	.00	1.82	3.18
	자아존중감	.04	.07	.54	> .10	-.09	.16
	공감	.27	.04	6.47	.00	.19	.35
	$F=17.97^{***}, R^2=.04$						

*** $p < .001$.



* $p < .05$. *** $p < .001$.

[그림 2] 권위있는 양육행동, 자아존중감, 공감,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직접효과

또한,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래핑을 분석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유의하였다(〈표 3〉참조). 〈표 4〉에서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B = .00$, 95% CI $[-.01, .08]$). 반면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B = .03$, 95% CI $[.00, .06]$). 즉, 부모가 권위있게 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의 공감능력이 높아지고, 이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높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중매개효과의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 95% CI $[.00, .02]$). 즉, 부모가 권위있게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고, 이는 높은 사이버폭력 감수성으로 연결되었다.

〈표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N = 1,167$)

경로	B	$S.E.$	95% CI	
			BootLLCI	BootULCI
총효과	.20	.07	.07	.33
직접효과	.16	.07	.03	.29
간접효과	.05	.02	.01	.08

〈표 4〉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 = 1,167$)

경로	B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권위있는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 사이버폭력 감수성	.00	.01	-.01	.02
권위있는 양육행동 → 공감 → 사이버폭력 감수성	.03	.01	.00	.06
권위있는 양육행동 → 자아존중감 → 공감 → 사이버폭력 감수성	.01	.00	.00	.0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아동기에 부모가 권위있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사이버폭력 감수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사이버폭력 경험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들(노경훈·한대동, 2017; 문희·강희순, 2018; 성동규·김도희·이윤석 외, 2006; 신나민·안화실, 2013; 조강원·임영식, 2020)과 맥을 같이 한다.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논리적인 설명과 통제를 제공하는 등의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Robinson, Mandlco, Olsen et al., 199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상황에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연구들(노경훈·한대동, 2017)은 동일 시점에서의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을 살펴본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자녀가 아동기에 부모가 행한 양육행동이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의 태도 및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일관적인 경향이 있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자녀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함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재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자 가정에서 교육할 때에 사이버폭력은 부정적인 행동이며 조심해야 하는 등의 직접적인 전달에 국한될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직접적인 교육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양육행동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스스로 지니게 하는 데 역할을 함을 부모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각각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공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을 하면 청소년기에 공감능력이 향상되며, 높은 공감능력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

구(강정희·이은희, 2009; 안은민·허무녕, 2024; 정화니·조옥귀, 2011)와 높은 공감능력은 폭력허용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높은 사이버폭력 감수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안지영·김지신, 2014; 조민규·홍송희·김춘경, 2014)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권위있는 양육을 하는 것은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능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에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자신에게 발생할 수도 있으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게 발생한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릇된 폭력 상황이 잘못되었고 사회구성원으로 정의롭게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이끄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폭력의 감수성 교육에 있어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 사이버 비행 문제가 감소되는데(Barlińska, Szuster, & Winiewski, 2013), 사이버비행은 사이버비행 감수성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므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가치관 확산과 스마트폰 과몰입 등의 문제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거나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공감능력이나 공동체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

반면,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높아진 자아존중감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민미희, 2020; 선미정·전종설, 2021; Kamkar, Doyle, & Markiewicz, 2012)는 지지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사이버폭력을 감소시키고(선미정·전종설, 2021) 사이버 윤리의식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이란희·유형근·남순임, 2015; 이정연·최영선, 2002)는 지지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는 연구도구의 측정시기에 따른 연구방법에서의 차이때문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동일 시점에서의 자아존중감과 사이버폭력 및 윤리의식을 살펴봤으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측정하였다. 3년의 기간동안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변화했을 가능성과 사이버폭력 경험이 아닌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

아에 대한 인식보다도 앞서 밝힌 공감과 같은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요인일 수 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 변인별 측정시기에 따른 변화와 함께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명확한 관계를 밝히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던 결과와 비교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인식보다는 공감과 같은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느끼는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 감수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욕이나 따돌리기 등의 역기능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입장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현상들을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에 대한 인식보다는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공감이 더욱 요구되는 능력일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아동기에 부모가 권위있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아동기때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높은 공감능력을 갖게 되고 높은 공감능력은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인 요인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인 자아존중감이 타인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는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킴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가치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Robinson, Mandlco, Olsen et al., 1995), 자아존중감과 공감이 폭력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강소라·조해련·김신정, 2020; 선미정·전종설, 2021; Spinrad & Gal, 201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동안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공감 및 사이버폭력 경험 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과 온라인을 활용한 일상생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현 시점에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개별적 매개효과에서는 공감의 매개효과를 밝혔으며, 이중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공감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혔다.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하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 모두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가 매년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사이버비행 문제가 낮아지므로(Barlińska, Szuster, & Winiewski, 2013),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비행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를 형성하도록 감수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애정적이고 일관적이고 권위있는 양육행동과 함께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지 않았으나 최근 공감을 다루는 연구들(Chakrabarti & Baron-Cohen, 2006; Davis, 1995)은 공감능력을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하위특성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공감 증진 프로그램들은 다수가 인지적 공감 위주로 구성되어 정서적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미비하였는데(Lam, Kolomitro, & Alamparambil, 2011)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공감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감의 하위요인별 특성에 따라 아동의 발달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인의 인식과 실제 사이버폭력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 가해경험, 방관경험 등 세분화하여 인식과 행동 간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접근이 가능하며 사회적인 문제해결에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기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하는 데에 아동기때 부모가 자녀에게 했던 양육행동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이 더욱 요구됨을 밝힘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힘으로써 이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 그러한 영향은 장기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주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사이버폭력의 유형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가정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보다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사용 목적 등을 통제하는 것에만 주력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 감수성과 같은 바람직한 의식을 지니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올바르게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사용 규제보다도 자신이 행동과 태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본질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 및 청소년 개인의 내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기업, 정부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이버폭력 감수성과 경험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개인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타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기분과 정서를 느끼고 인지적으로 파악하여 표현할 수 있는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감 관련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의 개별적인 매개효과와 함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인 이중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부정적인 상황이나 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인식에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나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명 ‘묻지마 폭행’ 등의 가해 이유로 “그냥”, “심심해서”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부적응적이고 폭력적인 행동과 사건의 중심에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정서적, 인지적, 표현적인 공감의 부재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더욱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접촉과 교류가 과거에 비하여 감소된 전세계적인 상황에서 공감 역량을 주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인성이 포함되면서 인성

교육 강화 차원에서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과 공동체,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2017). 인성과 공감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통합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 인성교육이 포함되고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현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성교육과 함께 공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감수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동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적인 영향을 살펴보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면서 공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사이버폭력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이나 훈련을 마련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소라·조해련·김신정(2020). 초등학교 학생의 공감 정도와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태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6(2), 164-172.
- 강정희·이은희(2009).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공감능력: 5요인 성격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0(4), 71-103.
- 구본희(2006). 인터넷 중독과 정보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5(3), 233-252.
- 김정옥·김완일(201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능력과 학교폭력태도의 관계에서 학교응집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 205-226.
- 김주찬(2012). 교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용서수준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을 매개변인으로.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궁기순·김기선·이재영·김지혜(2019). 아동의 공감능력과 교사와의 관계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6(4), 189-211.
- 노경훈·한대동(2017). 초등학교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공격성과 학교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7(1), 159-180.

- 문희·강희순(2018). 중학생의 사회생태학적 요인이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2), 421-428.
- 민미희(202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및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2(3), 149-166.
- 방송통신위원회(2024. 3. 26).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백선희(2020).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사이버비행 감소성, 조기 대처가 답.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배은경(201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85-100.
- 선미정·전종설(2021). 최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0), 215-246.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성향·사이버폭력 피해경험·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1), 79-129.
- 성정혜(2023).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소성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대 경험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육아정책연구, 17(2), 105-129.
- 신나민·안화실(2013). 청소년 사이버 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 1-21.
- 안은민·허무녕(2024). 중학생의 공감특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집단에 따른 또래관계 양상 차이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9), 653-672.
- 안지영·김지신(2014).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아동 공감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7), 217-242.
- 이란희·유형근·남순임(2015).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6), 65-86.
- 이상미(2024).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4(2), 218-238.
- 이정기·우형진(2010).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관한 연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27(1), 215-253.
- 이정아·이윤정(2016).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73-91.
- 이정연·최영선(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35-346.
- 인성교육진흥법(2017.12.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2024.10. 31.

인출

- 정화니·조옥귀(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행동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존감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1, 87-114.
- 조민규·홍송희·김춘경(2024).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청소년기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차이와 공감능력의 영향력 검증. *육아정책연구*, 18(1), 87-110.
- 조강원·임영식(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도의 매개 효과와 친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2(4), 159-181.
- 최나래(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정보문화실태조사 규범 영역 인터넷 윤리의식.
- 홍예영·김유숙(2015). 청소년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59-183.
- Barlińska, J., Szuster, A., & Winiewski, M. (2013).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bystanders: Role of the communication medium, form of violence, and empath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3(1), 37-51.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 1-103
- Berk, L. E. (2013). *Child Development*(9th ed.). Boston, MA: Pearson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krabarti, B., & Baron-Cohen, S. (2006). Empathizing: Neurocognitive developmental mechanisms and individual differences. *Progress in Brain Research*, 156, 403-417.
- Davis, M. H. (1995).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Corte Madera, CA: Select Press.
- Fernandez, A. V., & Zahavi, D. (2020). Basic empathy: Developing the concept of empathy from the ground up.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110, 103695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2),

129-156.

- Kamkar, K., Doyle, A., & Markiewicz, D. (2012). Insecure Attachment to Parents and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Mediating roles of attributions and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4*, 3-18.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m, T. C. M., Kolomitro, K., & Alamparambil, F. C. (2011). Empathy training: Methods, evaluation practices, and validity.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Evaluation*, *7*(16), 162-200.
- Lachmann, B., Sindermann, C., Sariyska, R. Y., Luo, R., Melchers, M. C., Becker, B., Cooper, A. J., & Montag, C. (2018). The role of empathy and life satisfaction in internet and smartphone use disorder. *Frontiers in Psychology*, *9*(Article 398), 1-11.
- Lu, H. J., & Chang, L. (2013). Parenting and socialization of only children in urban China: An example of authoritative parenting.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4*(3), 335-343.
- Linares, R., Aranda, M., García-Domingo, M., Amezcua, T., Fuentes, V., & Moreno-Padilla, M. (2021). Cyber-dating abuse in young adult couples: Relations with sexist attitudes and violence justification, smartphone usage and impulsivity. *PLoS One*, *16*(6), e0253180.
- McGrath, M. P., Zook, J. M., & Weber-Roehl, L. (2003). Socializing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The roles of parents and peers. *Advances in Psychology Research*, *20*, 53-59.
- Mussen, P., & Eisenberg, N. (2001). Prosocial development in context. In A. C. Bohart, & D. J. Stipek (Eds.), *Constructive & destructive behavior: Implications for family, school, & society* (pp. 103-126).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Connor, K. L., Dolphin, L., Fitzgerald, A., & Dooley, B. (2016). Modeling problem behavior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50*, 6-15.
- Parker, C. E. (2000). *Digital evidence and computer crime*.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1995). Authoritative, authoritarian, and permissive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 of a new

measure. *Psychological Reports*, 77(3, Pt 1), 819-830.

Robinson, E. V., & Rogers, R. (2015). Empathy faking in psychopathic offenders: The vulnerability of empathy measur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7, 545-552.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Roter, D. (1982).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transmission of information and patient effects. *Maryland State Medical Journal*, 32(4), 260-265.

Spinrad, T. L., & Gal, D. E. (2018). Fostering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in young childre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0, 40-44.

Vreeke, G. J., & Van der Mark, I. L. (2003). Empathy, an integrative model. *New Ideas in Psychology*, 21(3), 177-207.

Wade, A., & Beran, T. (2011). Cyberbullying: The new era of bullying.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6(1), 44-61.

- 논문접수: 11월 5일 / 수정본 접수 12월 4일 / 게재 승인 12월 20일
- 교신저자: 최혜선, 원광대학교 가족아동복지학과 조교수, hschoi20@wk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Authoritative Parenting in Childhood on Adolescent Susceptibility to Violence: The Dual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and Empathy

Hyesun Choi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ing during childhood on adolescents'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through self-esteem and empathy. Data from the 11th and 14th Panel Studies on Korean Children were used, and data from 1,167 households were analyzed. The children included 600 boys and 567 girl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authoritative parenting in childhood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Second, authoritative parenting during childhood indirectly affected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through empathy, a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empathy were significant. This study revealed that parents' positive parenting during childhood has a longitudinal effect on the attitude and value formation of adolescents, and found a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empathy in this process. When cyber violence rises,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youth and families.

Keyword: Susceptibility to Cyber Violence, Authoritative Parenting, Self-Esteem, Empathy